

한국 웹툰의 비공식 중국어 번역에 대한 고찰

- 공식 번역과의 대조를 중심으로

張琦*

目 录

1. 들어가는 말
2. 웹툰 번역 평가의 기준
3. 한국 웹툰의 비공식 및 공식 중국어 번역의 대조
4.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21세기에 접어들어 한류 열풍이 거세짐에 따라 한류는 과거 한류의 고유 분야인 드라마, K-POP, 패션 등을 넘어 웹툰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저작권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채 한국 인기 웹툰을 무단으로 번역한 불법 번역¹⁾ 커뮤니티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미 팬층이 형성된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면서 한국 웹툰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 N사는 2014년 5월부터 웹툰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로 번역하여 전용 사이트에 매주 업로드하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한국 대표 검색엔진으로서 N사의 위상과 N사의 다국어 웹툰 사이트가 전례 없는 대대

* 경희대학교 중국어과 조교수

- 1) 본 논문은 이런 형태의 번역이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앞으로 이런 형태의 번역을 비공식 번역이라고 하는 이유를 밝힌 후 이 용어를 다시 언급할 때는 비공식 번역이라고 하겠다.

적인 웹툰 번역 프로젝트인 점을 고려하여 필자는 N사의 웹툰 번역을 웹툰 공식 번역이라고 칭한다.

필자가 알고 있는 N사의 웹툰 공식 번역 과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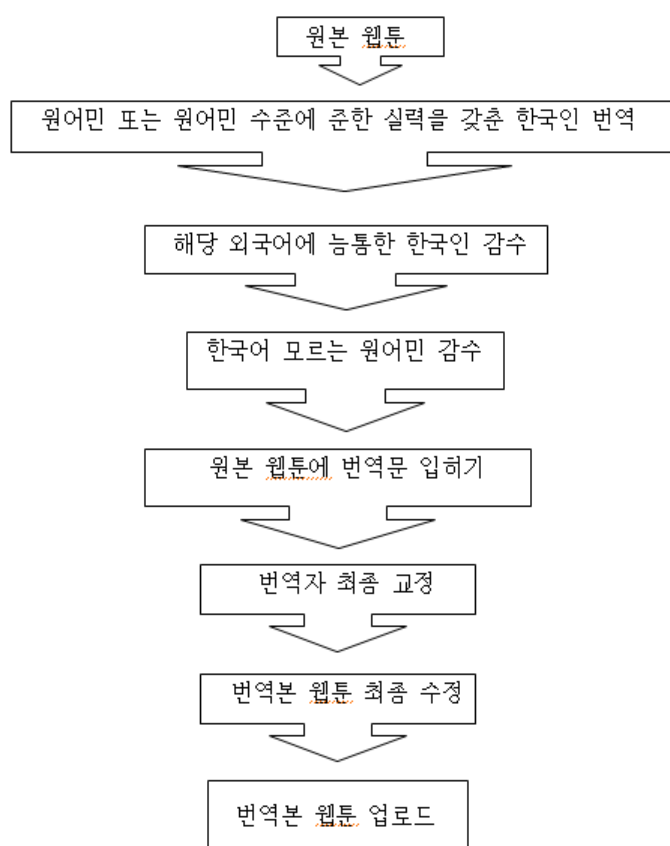


그림1: 웹툰 공식 번역 완성 과정

이렇게 까다로운 번역과 감수 과정을 거치므로 웹툰 공식 번역의 품질은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²⁾. ‘어느 정도’라고 표현한 이유는 번역

이 인위적인 행위이고 완벽한 결과물이 존재하기 어려우며 공식 번역과 불법 번역에 각각 장단점과 특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공식 번역이라고 해서 100% 완벽한 번역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불법 번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번역이라고 할 수도 없다.

최근에는 불법 번역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여 그것을 공정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문도 찾아볼 수 있다.³⁾ 불법 번역의 법적 문제는 본 연구와 무관하므로 더 이상 논하지 않겠으나 그런 논문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법 번역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가 주목하는 것도 과연 불법 번역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단언할 수 있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하는 부분이다. 2011년 6월 22일, 『세계일보』 김승환 기자는 ‘엔터리번역에 발목 잡힌 웹툰 한류’라는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현지 번역가 참여 필수...“불법 커뮤니티 양성화도 필요”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만화에 대한 이해가 있는 현지인의 번역 참여를 한목소리로 꼽는다. 한국 번역가가 작품의 핵심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작품을 옮긴 뒤에, 현지 번역가가 이를 다시 현지 만화 문법에 맞게 다듬어 독자들이 온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을 꾸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만화 장르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번역가 풀’의 확보다. 웹툰이 한국만화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떠오른 지금 상황에선, 특히 웹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지닌 번역가의 존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터넷상의 불법 번역 커뮤니티가 지닌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건 이런 배경에서다. 실제로 웹툰 ‘노블레스’, ‘신의 탑’ 등이 영미권에서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건 아이러니하게도 이 작

2) 공식 번역의 품질에 대한 고찰은 조만간 진행할 계획이다.

3) 이상빈, 「팬 번역의 법적 지위 개선에 관한 연구: 공정이용의 원칙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12(4), 한국번역학회, 2014, 119-143쪽.

품들을 무단으로 번역해 게재한 만화공유 사이트 ‘망가폭스(mangafox)’, ‘웹툰라이브(webtoonlive)’ 등의 역할이 컸다. 이들은 이미 다수의 팬으로부터 실력을 검증받았으며 레터링에 대해서도 충분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2012년부터 북미에 웹툰 포털사이트 ‘타파스틱’을 개설해 운영 중인 웹툰 유통업체 타파스미디어 관계자는 “해외에서 불법 번역을 하고 있는 이들은 대부분 해당 웹툰의 팬인 경우가 많다”며 “실제로 ‘웹툰라이브’에서 활동했던 번역가 2명에게 접촉해 결과물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줘 직접 양성 중”이라고 밝혔다.

위의 기사를 읽은 후 필자는 우리가 과연 불법 번역에서 배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궁금증을 풀기 위해 본고에서는 한국 웹툰의 불법 중국어 번역을 공식 번역과 대조 분석한 뒤 불법 중국어 번역의 문제점과 시사점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불법 번역이란 용어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위의 기사에서 언급된 불법 번역이란 용어와 비슷하게 사용되는 용어를 발견했다. 주로 영상물의 자막 번역에 관련된 것으로 팬서브(fansub), 넌 프로페셔널(non-professional) 번역 등이다. 박정운(2014)은 국내 팬자막 명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1: 국내 팬자막 명칭⁴⁾

노명우(2007)	아마추어 팬자막
정희정(2010)	인터넷 기반 비전문가 자막, 팬자막
김순영, 정희정(2010)	인터넷 기반 비전문가 자막번역, 인터넷 자막, 비전문가 자막→팬자막
이상빈(2011)	팬 번역
강진숙(2012)	인터넷 자막, 팬자막
김선영(2013)	팬자막

위의 표에서 여러 가지 용어가 제시되어 있으나 필자는 표에 없는 비공식 번역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고에서 고찰할 비공식 번역은 영상물의 자막 번역이 아닌 웹툰 번역이므로 인터넷 자막 번역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필자는 이상빈(2011)이 주장하는 팬 번역의 법적 지위 개선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으나 해당 논문에 사용된 팬 번역이란 용어의 정의에는 동의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팬 번역의 불법성 여부가 아니라 번역 양상에 대해서만 논할 것이므로 불법 번역이나 팬 번역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할 경우 비공식 번역을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옹호하는 오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팬 번역과 같은 개념을 비공식 번역이라고 하겠다.

셋째, 공식 번역에서도 비전문가나 아마추어 번역자에게 번역을 맡긴 경우가 생각보다 허다하다. 동시통역의 경우, 대부분 통역을 의뢰할 때 동시통역 전공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하나 이와 달리 실제 번역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번역은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남아 있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인맥 위주로 의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에도 공식 번역을 하는 사람은 전문가이고 비공식 번역을 하는 사람은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번역자가 아마추어인지 전문가인지 여부로 공식 번역과 비공식 번역을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넷째, N사의 웹툰 번역 사이트에 업로드된 만화가 공식 번역이라고 한다면 기타 루트로 이루어진 번역은 당연히 비공식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본고에서 고찰할 번역을 비공식 번역이라고 하되 그 정의는 이상빈(2011)의 팬 번역을 따르도록 하겠다. 명칭은 다르나 가리키는 대상이 같기 때문이다. 팬 번역, 즉 비공식 번역이란 영화, 애니메이션, 비디오 게임 등의

4) 박정윤, 『영화 엽기적인 그녀 한불자막 번역 분석 : 팬자막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45쪽.

문화상품이 다른 언어권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문화 현상으로 팬들이 팬덤(fandom)에서의 공유를 위해 저작자의 허락 없이 자발적으로 수행한 번역 또는 그러한 활동을 의미한다⁵⁾.

이상빈(2011)은 이런 현상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이런 현상은 일반적인 번역 출판 과정이 팬들의 욕구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가령 공식 번역본의 배포에 수개월이 걸려 적시성을 놓칠 수 있거나 번역에 대한 필요성 자체가 파악되지 않아 팬덤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공식 번역본의 품질이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열성적인 팬들을 중심으로 해당 타이틀의 수집, 번역, 배포가 이루어진다⁶⁾.

웹툰 번역의 비공식 번역이 생겨난 이유는 이상빈이 예로 든 것 중 첫 번째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N사의 웹툰 공식 번역은 2014년 5월부터 시작되었으나 비공식 번역은 그보다 1~2년 전에 시작되었고 인기 웹툰은 거의 실시간으로 업로드되어 왔다. 비공식 번역의 속도를 쫓아가기 위해 공식 번역 시작 당시 초기 한두 달 동안 공식 번역에 참여한 번역자들은 무리한 번역 일정을 소화하며 밤낮 없이 번역에 매달려야만 했다. 즉, 그 동안 웹툰 공식 번역이 전무했기 때문에 비공식 번역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 다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본고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번역자의 특성이나 비공식 번역의 특성이나 하는 것이다. 비공식 번역에 관한 선행 연구를 보면 거의 모두 사례 연구로 되어 있다. 박정윤(2014)은 또한 팬자막의 특징에 관해서는 기존의 영상 자막 번역과의 비교 및 대조를 통해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수차례 거론되어 왔다고 했다⁷⁾. 글로벌 시대와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비공식 번역 텍스트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해

5) 이상빈, 「팬 번역의 법적 지위 개선에 관한 연구: 공정이용의 원칙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12(4), 한국번역학회, 2011, 119쪽.

6) 같은 논문 121쪽.

7) 박정윤, 『영화 열기적인 그녀 한불자막 번역 분석: 팬자막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59쪽.

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퍼스 기반 번역 연구 방법⁸⁾을 이용하지 않은 이상은 모든 연구가 사례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본고 또한 하나의 사례 연구이므로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以小見大’라는 사자성어의 뜻처럼 사례 연구를 통해서도 비공식 번역의 단면을 어느 정도 들여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비공식 번역을 수행하는 번역자의 특성을 통해서 비공식 번역의 특성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2. 웹툰 번역 평가의 기준

국어사전에 평가란 ‘사물의 가치나 수준 따위를 평함. 또는 그 가치나 수준’이라고 되어 있고 비슷한 말로는 비평, 감정 등이 있다. 그러므로 어떤 번역 결과물을 평가할 때 일정한 기준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번역 연구자인 사현주(司顯柱)는 아래와 같이 서술한 바가 있다.⁹⁾

‘번역 품질을 평가할 때 우선 일정한 기준에 기대야 한다. 기준의 확립은 번역 본질에 대한 인식, 즉 번역의 정의에 달려 있다. 번역 관점에 따라 번역 기준, 번역 전략, 번역 방법도 달라지며 번역 품질 개념과 번역 평가 방법도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고 또 연구자의 인지 수준과 연구 시각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견해도 다를 수밖에 없다.’¹⁰⁾

8) 이창수는 「코퍼스 기반 번역 연구(CTS) 방법론」에서 코퍼스 기반 번역 연구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연구투명성, 즉 다른 연구자들이 주장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고 동일 데이터에 대한 다른 해석을 시도할 수 있다. 둘째, 코퍼스언어학 분석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소량의 텍스트와 수작업을 분석으로 불가능한 번역의 특징을 밝혀낼 수 있다. 셋째, 좀 더 구체적으로 CTS는 번역에 대한 일반의 기대, 이론가들의 주장 및 전문번역사의 실제 번역행위 등을 다량의 데이터를 통해 분석 검증하는 데 유용하다. 『통역과 번역』, 15(1), 2013, 102-103쪽.

9) 사현주(司顯柱), 『翻譯研究: 理論, 方法, 評價(번역 연구: 이론, 방법, 평가)』, 북경:中國文史出版社(중국 문사 출판사), 2005, 182쪽.

10) ‘對翻譯質量進行評估首先要依賴一定的標準, 而標準的確立又取決於對翻譯本質的認識, 即

다시 말하면 번역 평가를 할 때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정한 번역 기준, 번역 전략에 비추어 한국 웹툰의 비공식 중국어 번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본고에서 사용할 평가 항목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번역 기준

『中國譯學大辭典(중국 번역학 대사전)』은 번역 기준(criteria)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술했다¹¹⁾.

‘번역 기준이란 번역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근거이고 번역물 품질을 평가하는 척도이며 번역자가 끊임없이 노력하여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이다.’¹²⁾

번역 기준은 번역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제인 만큼 이것에 관련하여 각국의 수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내놓았다. 중국의 전통적인 번역학 이론에서 많이 언급된 것은 엄복(嚴復)이란 번역가가 제시한 ‘신(信), 달(達), 아(雅)’이다.

엄복의 설명에 의하면 이 세 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신(信)--출발어에 충실해야 한다.
달(達)--도착어의 가독성이 높아야 한다.
아(雅)--도착어가 우아해야 한다.

對翻譯的定義。可以說，不同的翻譯觀產生不同的翻譯標準，不同的翻譯策略和方法，也因此導致不同的翻譯質量概念和不同的翻譯評估方法。由於問題的極其複雜性，以及研究者的認知水平和切入視角的差別，對以上問題的回答，可謂見仁見智。’

11) 방몽지(方夢之), 『中國譯學大辭典(중국 번역학 대사전)』, 상하이:上海外語教育出版社(상하이 외국어 교육 출판사), 2011, 68쪽.

12) ‘指翻譯活動必須遵循的准繩，是衡量譯文質量的尺度，是翻譯工作者不斷努力以期達到的目標。’

이 세 가지 중에서 ‘아(雅)’에 대한 논쟁이 가장 많다. 엄복(嚴復)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아(雅)’란 ‘한나라 이전의 중국어를 사용하여 번역해야 한다’는 것으로 현대 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엄복(嚴復)의 ‘아(雅)’에 대한 주장에 한계가 있는 것은 그가 처했던 시대, 번역했던 작품 등에 관련돼 있을 것이다. 엄복(嚴復)은 1854년부터 1921년까지 생존했던 인물로 중국의 저명한 번역가이자 교육가이다. 그의 대표적 번역 저작물로 토머스 헨리 헉슬리(Thomas Henry Huxley)의 『천연론(Evolution and Ethics and other Essays)(天演論)』을 들 수 있다. 중국의 백화문(白話文¹³⁾)운동이 청나라 말 유신운동(維新運動)이 시작된 1898년부터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천연론』이 번역된 1897년에 제시된 ‘신달아(信達雅)’의 ‘아(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통적인 번역학 연구에 있어서 ‘신달아(信達雅)’란 번역 기준은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 기준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고 정량화되기 어렵다는 등의 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간단명료하고 기억하기 쉬우며 항목이 명확하다는 등 장점 또한 부정할 수 없다¹⁴⁾.

그러나 웹툰은 해당 텍스트 유형의 특수성¹⁵⁾으로 인하여 우아한 중국어로 번역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신달아(信達雅)’ 대신에 1979년에 중국의 유중덕(劉重德)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신(信), 달(達), 절(切)’이란 기준을 사용할 것이다. 그가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다¹⁶⁾.

‘신(信)--출발어의 의미를 보존해야 한다.

달(達)--도착어는 가독성이 높아 쉽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절(切)--도착어의 텍스트 유형 특징은 출발어에 부합해야 한다.’¹⁷⁾

13) 고대 중국어 문체인 문언문(文言文)의 상대적인 개념.

14) 방몽지(方夢之), 『中國譯學大辭典(중국 번역학 대사전)』, 상하이:上海外語教育出版社(상하이 외국어 교육 출판사), 2011, 71쪽.

15) 웹툰의 텍스트 유형 특성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서술할 것이다.

16) 방몽지(方夢之), 『中國譯學大辭典(중국 번역학 대사전)』, 상하이:上海外語教育出版社(상하이 외국어 교육 출판사), 2011, 72-73쪽.

‘신달아(信達雅)’와 ‘신달절(信達切)’을 비교해 보면 두 기준은 세 번째 항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중덕(劉重德)은 엄복(嚴復)의 주장을 계승,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신달절(信達切)’ 중의 ‘절(切)’은 서구 번역 학자들이 주장하는 ‘텍스트 유형별 번역’과 같은 맥락이다.

다음 장에서 ‘신달절(信達切)’이란 기준으로 웹툰의 비공식 중국어 번역을 공식 번역과 대조하며 고찰하고자 한다.

2) 번역 전략

번역 전략이란 ‘역자가 번역 실천 과정에서 이미 수립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번역 방법과 연관돼 있어서 혼용하는 학자들도 많다. 일반적으로 번역 전략은 문화 측면에서 논해지는 것으로 이국화와 자국화로 나뉘질 수 있는 것에 반해 번역 방법은 텍스트 측면에서 논해지는 것으로 직역, 의역 등으로 나뉘질 수 있다.¹⁸⁾

본고는 다음 장에서 웹툰 비공식 중국어 번역의 문화요소 번역 양상을 이국화와 자국화로 나뉘 살펴볼 것이다.

즉, 다음 장에서 필자는 한국 웹툰의 비공식 중국어 번역을 다음의 4가지 항목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신(信)--출발어에 충실한가?

둘째, 달(達)--도착어의 가독성이 높은가?

셋째, 절(切)--도착어의 텍스트 유형 특징은 출발어에 부합하는가?

넷째, 이국화와 자국화가 적절한가?

17) ‘信-保全原文意義。達-譯文通順易懂。切-切合原文風格。’

18) 방몽지(方夢之), 『中國譯學大辭典(중국 번역학 대사전)』, 상하이:上海外語教育出版社(상하이 외국어 교육 출판사), 2011, 109-110쪽.

3. 한국 웹툰의 비공식 및 공식 중국어 번역의 대조

위에서 중국 번역학의 전통적인 번역 기준과 번역 전략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다. 본 장은 위에서 언급한 ‘신(信), 달(達), 절(切), 이국화/자국화’ 등 4가지 항목으로 한국 웹툰의 비공식 중국어 번역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중국의 대표 포털 사이트 중 하나인 바이두(百度)에서 ‘한국만화(韓國漫畫)’를 입력하면 여러 개의 웹툰 사이트와 커뮤니티를 검색할 수 있다. 대표적 사이트로 ‘http://www.tuku.cc(图库漫画)’와 ‘http://manhua.dmzj.com(动漫之家)’ 등이 있다. 이 두 사이트에는 중국 만화뿐 아니라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등 다양한 나라의 웹툰이 게재돼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두 사이트의 한국 웹툰 커버 아래쪽에 있는 ‘网漫汉化组(웹툰 중국화 팀)’란 글자에서 같은 팀이 번역한 한국 웹툰이 여러 사이트에 오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인기 웹툰은 이 두 사이트에서 모두 검색된다. 보다 신속하게 비공식 번역을 알아보기 위해서 필자는 본인이 공식적인 번역 루트를 통해서 번역하게 된 ‘강시대소동’과 ‘와일즈 소녀’¹⁹⁾의 비공식 번역과 공식 번역만 살펴보기로 했다.²⁰⁾

1) 신(信)--출발어에 충실한가?

‘와일즈 소녀’의 경우, 출발어인 한국어의 매 화(話)에는 소제목이 없지만 비공식 번역본은 매 화마다 소제목이 추가돼 있다. 이 점은 출발어에 대한 비충실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제목 이외의 내용을 살펴보면 출발어를 전혀 다른 의미로 번역하거나 출발어의 일부를 완전히 삭제한 채 번역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 예시는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19) 본고에서는 ‘강시대소동’ 1-7화와 ‘와일즈 소’ 167화만 살펴봤다.

20) 본고에서 출발어는 ST로 표시하고 비공식 번역은 TTn-1로 표시하며 대조되는 공식 번역은 TTn-2로 표시한다.

표2: 출발어에 대한 비공식 번역의 비충실 예시

예시	설명
[ST1] 설레인다, 야! [TT1-1] 好興奮啊! 21) [TT1-2] 心馳蕩漾啊!	'興奮'은 흥분하다는 뜻으로 '설레이다'와 느낌이 다르다.
[ST2] 잘 부탁해~ [TT2-1] 好好兒玩兒吧~ [TT2-2] 拜託啦~	'부탁하다'에 해당되는 중국어가 있고 여기에 사용해도 그 느낌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
[ST3]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상대 선수가 일반적인 도발을 넘어서는 행동을 합니다!! [TT3-1] 裁判! 22) 你不管管嗎? 這已經不是挑釁了! [TT3-2] 這也太過分了吧! 對方選手的行為已經不是一般的挑釁了!	'TT3-1'는 '심판님! 뭐라고 좀 하시죠! 이젠 이미 도발이 아닙니다!'로 출발어와 확연히 다르게 돼 있다.
[ST4] 저...저건!! 성희롱 수준입니다! 세컨으로서 심판에게 정식으로 항의합니다!! [TT4-1] 簡直, 簡直是性騷擾! 我抗議! [TT4-2] 他...他這 簡直就是性騷擾! 我作為副教練, 正式向裁判提出抗議!	'세컨으로서'와 '정식으로'라는 출발어는 아예 번역되지 않았다.
[ST5] 변칙이 없다는 패턴을 잘~ 이용하면 무리없이 이길 수 있지! [TT5-1] 打她 小意思! [TT5-2] 只要好好兒	'TT5-1'는 '무리없이 이길 수 있지' 정도만 번역돼 있다.

	利用她那不變的套路~ 就能輕而易舉地 打贏!	
[ST6]	당연하지요! 진지하게 임하는 시합에서 상대가 저렇게 더럽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TT6-2'는 '더럽다'는 의미만 두 번 강조하고 번역했다.
[TT6-1]	當然! 太齷齪了! 太無恥了!	
[TT6-2]	當然了! 在嚴肅的 比賽上, 怎麼可以 這樣侮辱對方!!	

위의 예시 외에도 출발어의 의미를 충실하게 반영하지 않은 예시가 도처에 출현한다. 한국어 출발어가 약간 길다 싶거나 어렵다 싶으면 축약해서 번역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2) 달(達)--도착어의 가독성이 높은가?

비공식 번역은 비충실성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잘 읽혀지고 맛깔스러운 표현이 많다는 인상을 줬다. 그 예시는 아래 표에서 제시되어 있다.

- 21) 실제 웹에서 중국어 한자는 모두 대륙에서 통용되는 간체자로 표시돼 있으나 본고에서는 논문 형식을 맞추기 위해 간체자를 임의로 번체자로 바꿔 표기했다.
- 22) 도착어의 출발어는 출발어의 형식에 따른 것이다.

표3: 비공식 번역에 있는 가독성 높은 중국어 표현 예시

예시	설명
[ST7] 이의 인정합니다. 정도에 지나치는 행동은 삼가세요! [TT7-1] 同意抗議! 請注意言行! [TT7-2] 異議獲得認可。 請你注意不要做出 過分的行為!	‘TT7-2’는 출발어에 지나치게 얽매어서 약간 번역체가 있다.
[ST8] 양 선수 코너로 돌아가 1분간 정숙하고 다시 나오세요! [TT8-1] 雙方選手回到 各自位置, 冷靜一分鐘后 再開始比賽! [TT8-2] 請雙方選手 回到賽臺角 靜思一分鐘后 再出場!	‘정숙하다’는 표현은 ‘TT8-1’과 ‘TT-8-2’ 모두 한자어 직역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TT8-1’의 ‘冷靜’이 더 문맥에 맞는 단어이다.
[ST9] 어렵다... 어찌라는 거지? [TT9-1] 她到底什么意思? 果然是女人心海底針? [TT9-2] 好難啊... 她到底希望怎樣啊?	‘TT9-2’도 문제없는 번역이지만 ‘TT9-1’은 ‘女人心海底針(여자 마음은 바다 밑의 바늘)’이 라는 중국어 속담으로 ‘어찌라는 거지’라는 의 미를 재미있게 살렸다.
[ST10] 이유는 잘 몰라요! 그런데...그냥 화가 나요! 선배가 모욕을 당하는 걸 보니까 화가 났어요! [TT10-1] 我說不清 自己為什麼生氣! 就是...看到你被侮辱, 就火冒三丈!	‘TT10-2’도 문제없는 번역이지만 ‘TT10-1’은 ‘火冒三丈(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다)’이 라는 중국어 사자성어로 ‘화가 나요’라는 의미 를 살려 줬다.

<p>[TT10-2] 我不知道為什麼！ 但是...我就是生氣！ 看到學姐被欺負， 我就冒火！</p>	
<p>[ST11] 상대 선수... 아니, 저놈한테 너무 화나고, 별 대응을 하지 않는 선배도 괜히 싫었어요! [TT11-1] 我就是 气那个王八蛋！ 也气你一声不吭！ [TT11-2] 对方选手... 不, 这王八蛋 太让我气愤, 而学姐你毫无反应, 甚至更让我讨厌！</p>	<p>'TT11-2'도 문제없는 번역이지만 'TT11-1'은 '氣+N+ (V) (누구/누가 ~해서 화나다)'이라는 중국어 구어체 패턴으로 '화가 나다'라는 의미를 살려 줬다. 그 외에도 '一聲不吭 (한 마디도 말하지 않았다)'라는 사자성어로 '별 대응을 하지 않다'는 의미를 표현했다.</p>
<p>[ST12] 그래서...그러니까... 저놈이 실력이 좋아서 상대하기 힘든 건 알지만, 가능하면 선배가 시작부터 실력 발휘해서 아주 짓몽개 버렸으면 좋겠어요!! [TT12-1] 所以...所以... 雖然我知道 那個混蛋不好對付... 但你一定要狠狠揍他, 揍得他連爹媽都認不出來！ [TT12-2] 所以...我是說... 儘管我知道這傢伙 實力強, 難對付, 但我還是希望學姐你 盡可能發揮實力 打倒他！</p>	<p>'TT12-2'도 문제없는 번역이지만 'TT12-1'은 '狠狠揍他, 揍得他連爹媽都認不出來(엄마, 아빠도 그를 못 알아볼 정도로 세계 때려라)'이라는 중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써서 '짓몽개 버리다'라는 의미를 살려 줬다.</p>

비공식 번역이 전부 더 낫다고 볼 순 없으나 위의 예시를 통해서 일부 번역은 더 중국어답게 번역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비공식 번역의 비충실성에 비롯된 것이다. 비충실성은 바람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행히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출발어에 대한 충실도가 떨어져도 된다는 번역관을 가지고 있는 번역자라면 그가 출발어에 얽매이는 확률이 당연히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반면에 학교에서 번역을 배운 적이 있고 오랫동안 번역을 해온 숙련된 번역자는 반드시 출발어에 충실해야 한다는 강박증으로부터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출발어에 충실한 것도 좋으나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나친 충실성은 다소 어색한 표현을 초래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 현지에서 번역하는 필자의 언어 감각이 쇠퇴한 것이다. 특정 언어에 대한 감각은 모국어라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접하고 익히며 연마하지 않으면 퇴보하게 되어 있다. 필자는 한국 생활이 십여년이 넘었고 매일 한국어와 중국어를 비슷한 비율로 접하다 보니 중국어에 대한 감각이 조금씩 무뎠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비단 필자뿐만 아니라 문학 번역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웹툰 번역을 맡고 있는 번역자 대부분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어 원어민이란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모국어의 쇠퇴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현실일 것이다. 이것은 번역자로서 평생 끊임없이 모국어인 A언어와 외국어인 B언어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3) 절(切)--도착어의 텍스트 유형 특징은 출발어에 부합하는가?

라이스(Reiss)는 '텍스트 유형에 따라 번역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가 있다²³⁾.

張琦(2014)는 웹툰의 텍스트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²⁴⁾

23) Jeremy Munday,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rories and Applications』. 이덕봉(李德鳳) 역, 북경: 商務圖書館(상무도서관), 2005, 107쪽.

24) 장기(張琦), 「웹툰 한중 번역에 대한 고찰」, 『통번역교육연구』, 12(4), 한국 통번역교육 학회, 2014, 208쪽.

- 첫째, 구어체적인 표현이 많은 편이다.
- 둘째, 의성어와 의태어가 많다.
- 셋째, 서사적이다.
- 넷째, 그림도 일종의 언어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 다섯째, 단어·어절 단위, 문장 단위, 이야기 단위로 웃음이나 감동 등을 제공한다.
- 여섯째, 과장, 비유 등 수사법을 많이 활용한다.
- 일곱째, 웹툰 언어에 한국 문화가 축약돼 있을 수 있다.
- 여덟째, 웹툰은 에피소드, 유니버스, 스토리 등 더 세부적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웹툰을 번역할 때 웹툰의 이러한 텍스트 유형의 기능적 특징을 고려하여 출발어의 텍스트 유형 특징을 최대한 살리며 도착어에서도 출발어와 같은 효과를 추구해야 한다.

한국 웹툰의 비공식 중국어 번역이 이런 측면에서 어떠한지 표4를 통해서 살펴해보도록 한다.

표4: 비공식 중국어 번역의 출발어 텍스트 특징 반영도

예시	설명
[ST13] 아이고 배야!! 세 놈 다 똑같이 속았어!! 푸하하하하하!!! [TT13-1] 行不行啊! 笑屎老子了, 你們仨竟然全都上當! 哈哈哈哈哈!! [TT13-2] 哎呀, 肚子啊!! 三個人 竟然全被我給耍了!! 哈哈哈哈哈!!!	‘TT13-2’도 맞는 번역이지만 ‘TT13-1’은 ‘屎(똥)’으로 ‘死(죽다)’를 대신하여 번역했다. 중국어에 많은 사투리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동북지역 사투리는 특유한 억양과 ‘z, c, s’와 ‘zh, ch, sh’ 발음을 구별하기 힘들다는 특징 때문에 개그에서 자주 사용된다. 따라서 ‘屎’은 ‘死’의 정확한 성모(聲母)인 ‘s’를 일부러 ‘sh’로 발음하고 ‘똥’이란 의미까지 더하여 많은 웃음을 유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ST14] 아...너무 웃어서 눈물이 다 나에!...눈물 좀 닦고... 아...진짜...내가 니네들 덕	‘TT14-1’의 ‘繩命, 是入刺地井猜’는 ‘生命是如此地精彩(인생은 이렇게도 다채롭다)’라는 중국어의 동북 지역 사투리 억양을 한자로 받아

<p>[TT14-1] 분에 학교 다닐 맛이 난다! 不行了, 我得去擦擦眼淚! 謝謝你們! 是你們讓我知道 繩命, 是入刺地井猜!</p> <p>[TT14-2] 啊...眼淚都笑出來了! 我擦擦淚水啊...笑死了, 有你們幾個, 我才愛來學校!</p>	<p>적은 것이다. 읽어보면 동북 지역 사투리처럼 들려서 사람들이 재미있어 한다. 인터넷에서 인기 많은 표현이다.</p>
<p>[ST15] ...우린 죽을 맛이다. [TT15-1] 我們覺得 ...繩命是入刺地杯具! [TT15-2] ...我們卻難堪死了。</p>	<p>'TT15-1'의 '繩命是入刺地杯具'는 정확한 한자로 표기하면 '生命是如此地悲劇 (인생은 이렇게도 비극적이다/비참하다)'이다. '繩命是入刺地'는 동북 지역 사투리 억양을 한자로 받아 적은 것이다. '杯具'는 '悲劇'와 발음이 같은 한자로 인터넷에서 자주 쓰는 유행어이다.</p>
<p>[ST16] 지네들끼리 연락했겠지! [TT16-1] 他們自己轉的吧? [TT16-2] 他們自己互相聯繫的唄!</p>	<p>'TT16-1'의 '轉'은 전달받은 문자나 인터넷 글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린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로 '聯繫'보다 더 생동감이 있다.</p>
<p>[ST17] 길수와 나의 신장차이는 엄청나서 반항할 수조차 없다. [TT17-1] 就怕打不過他, 他太壯了... [TT17-2] 可吉秀個子比我 高得多, 我沒法反抗。</p>	<p>'TT17-1'은 '打不过(때려서 이길 수 없다)', '壯(튼튼하다)' 등 구어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웹툰의 텍스트 특징을 잘 살려 줬다.</p>
<p>[ST18] 뭐야? 아침? [TT18-1] 什麼東東? [TT18-2] 啥玩意? 早飯?</p>	<p>'TT18-1'의 '東東'은 중국어에서 물건이란 뜻의 '東西'를 대신하여 사용되는 인터넷 용어이다.</p>
<p>[ST19] ...어찌되었든 이 일이 청나라의 귀에까지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하오! [TT19-1] 如此甚好。 此事萬不可讓清廷得知。 眾卿切記! [TT19-2] 無論如何, 此事萬萬不可傳到清國。 望各位謹慎言行!</p>	<p>출발어는 조선 시대 인조가 한 말이다. 'TT19-1'은 'TT19-2'보다 사극 말투를 더 잘 살려 줬다.</p>

위의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TTn-2’도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으나 ‘TTn-1’은 중국어 관용어, 속담, 인터넷 유행어, 신조어 등을 이용하여 도착어의 텍스트 유형 특징을 출발어에 더 가깝게 만들었다.

4) 이국화와 자국화가 적절한가?

이국화와 자국화는 번역할 때 문화 측면에서 취하는 전략과 방법이다. 한국 웹툰을 비공식으로 번역한 번역자들은 자신을 ‘網漫漢化組(웹툰 중국화 팀)’라고 칭한다. 번역할 때 그만큼 자국화 전략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번역물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표에 관련 예시가 정리되어 있다.

표5: 비공식 중국어 번역의 자국화 예시

예시	설명
[ST20] 마치 사자의 식사가 끝난 후 하이에나가 남은 고기를 처리하듯 다가와 말을 걸어온다. [TT20-1] 典型的狗仗人勢, 狐假虎威。 [TT20-2] 仿佛獅子啃完肉, 鬣狗接著來處理剩飯似的 添油加醋。	‘마치 사자의 식사가 끝난 후 하이에나가 남은 고기를 처리하듯’이라는 것은 한국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은유이지만 ‘TT20-1’은 이것을 완전히 무시한 채 ‘狗仗人勢(개가 주인을 믿고 사납게 굴다), 狐假虎威(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리다)’로 번역했다.
[ST21] 청나라에서 온 도사가 벌써 조선 땅에 당도하였단 말인가? [TT21-1] 中原的道士 這麼快到了? [TT21-2] 來自清朝的法師, 到得如次迅速?	‘청나라’라는 출발어를 ‘TT21-1’에서 ‘中原(중원: 중국의 황허 강 중류의 남부 지역. 흔히 한 때 군웅이 할거했던 중국의 중심부나 중국 땅을 이른다)’라고 번역했다. 중원은 중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이니 조선의 인조가 청나라를 중원이라고 부를 리가 없다. 따라서 이렇게 번역한 것은 자국화를 과도하게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p>[ST22] 이...이게 무슨 짓... [TT22-1] 臥~槽! [TT22-2] 你...你幹什麼你...</p>	<p>‘이...이게 무슨 짓...’은 한국어에서 남의 행동을 탓할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인데 ‘TT22-1’에서 이것을 지나치게 자국화시켜서 ‘臥~槽(我操와 발음이 비슷함)’라는 중국어 욕으로 번역했다.</p>
<p>[ST23] 그나저나 서울 위쪽으로 한참을 달린 것 같은데...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TT23-1] 旅途還在繼續, 也不知道走了有多久。沿途的風景早已變成了青山碧水。 [TT23-2] 可是, 車已經朝首爾以北開了半天了。不知道我們到底在朝哪兒走?</p>	<p>‘TT23-1’은 출발어에 있는 ‘서울’이란 단어를 생략한 채 ‘여정은 계속된다. 얼마나 갔는지 몰라. 도로변의 풍경도 푸른 산과 물로 변해 버렸다’고 새로이 창작했다.</p>
<p>[ST24] 두 번 다시는 이 조선 땅을 함부로 떠돌아다닐 수 없도록 처리하시오. [TT24-1] 這次務必要將此妖孽斬草除根! [TT24-2] 再也不准僵尸踐踏朝鮮土地, 務必徹底除掉!</p>	<p>‘TT24-1’은 출발어에 있는 조선 땅이란 단어를 생략한 채 번역했다.</p>
<p>[ST25] 어 그러네! 닭이다! 그리고 보니 여기서도 수탉! 저기도 수탉이네!! [TT25-1] 還是只公雞呢~ [TT25-2] 哦, 可不是嗎? 這樣一來, 你是公雞, 那也是公雞!! (‘秀卓’의 韓語發音與 韓語的‘公雞’相似。)</p>	<p>‘강시대소동’ 주인공의 이름은 수탉이다. 눈앞의 수탉을 본 친구가 그래서 ‘여기도 수탉, 저기도 수탉이네’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을 따른 것이므로 번역 불가능하고 주석 처리를 해 줘야 한다. ‘TT25-1’은 이런 것을 다 무시한 채 ‘還是隻公雞呢(그리고 보니 수탉이네)’라고만 번역했다. 이것은 출발어의 언어적 문화 요소를 지극히 자국화시킨 것이다.</p>
<p>[ST26] 수탉아, 너도 얼른 먹어! 완전 입에서 녹는다니까! [TT26-1] 秀卓, 你也吃啊!</p>	<p>‘입에서 녹는다’는 것은 한국어에서 음식이 맛있다고 할 때 흔히 사용하는 은유적 표현이다. ‘TT26-1’은 이것을 이국화시키지 않고 간단히 ‘很好吃的(맛있다)’라고만 했다.</p>

很好吃的。 [TT26-2] 秀卓, 你也快吃! 像化在嘴裡一樣!	
---	--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비공식 번역은 문화적 요소와 부딪히게 될 때 이것을 이국화시키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국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번역이 번역 목적에 따른 번역자의 능동적인 행위임을 보여준다. 비공식 번역의 목적은 중국 독자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만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에 필자와 같은 공식적인 번역 루트를 통하여 한국 웹툰을 번역하게 된 번역자들은 한국 문화의 전파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번역을 통해 한국 웹툰에 함축되어 있는 한국 문화의 각 요소를 중국 독자들에게 보여 주고 싶어 한다.

4. 나가는 말

상술한 4가지 항목에서 한국 웹툰의 중국어 비공식 번역을 공식 번역과 대조하며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신(信)--출발어에 충실한가?

자발적인 번역 참여, 무보수, 번역 시간에 대한 압박감, 감수 시스템의 부재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비공식 번역은 곳곳에서 부실한 번역 결과물을 볼 수 있다. 심한 경우 재창작에 가까운 번역도 확인되었다.

둘째, 달(達)--도착어의 가독성이 높은가?

일부 번역문은 가독성이 높고 현재 유행하고 있는 인터넷 유행어를 잘 활용하고 있어 재미를 더하였다.

셋째, 절(切)--도착어의 텍스트 유형 특징은 출발어에 부합하는가?

출발어가 웹툰의 텍스트 유형에 맞게 도착어로 번역된 경우가 많다.

넷째, 이국화와 자국화가 적절한가?
지나치게 자국화(중국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공식 번역은 이처럼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웹툰 번역을 하고 있는 번역자들에게 시사하는 바도 적지 않다.

첫째, 번역의 첫 번째 원칙이 출발어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웹툰 한중 번역이 외국어인 한국어를 모국어인 중국어로 번역하는 문학번역 작업이므로 번역자들은 설령 원래 웹툰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어도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어 웹툰을 즐겨보고 대사가 많은 한국어 소설, 드라마, 영화를 많이 봐야 한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웹툰 특유의 개그, 언어유희 등이 나올 경우 적극적으로 한국어 원어민에게 의미를 확인한 후 번역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좋은 번역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 번역자가 출발어의 속박에서 더 벗어나 출발어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 주되, 중국어다운 중국어로 번역해야 한다. 즉, 충실성과 가독성의 균형을 최대한 추구해야 한다.

셋째, 웹툰의 주된 독자층이 젊은 층인 만큼 웹툰 번역자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마다 중국 웹툰이나 중국의 인터넷 글을 보거나 중국어 원서를 다독하여 녹슬지 않은 중국어 감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웹툰 공식 번역을 맡은 번역자들은 자신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웹툰을 통해 한국과 한국 문화 등을 중국인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웹툰 번역 시 문화 관련 내용이 나올 경우 역주 등을 활용하여 한국과 한국 문화를 알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參考文獻

- 김승환, 「엔터티 번역에 발목 잡힌 웹툰 한류」, 『세계일보』, 2014년6월22일자.
- 박정윤, 『영화 엮기적인 그녀 한불자막 번역 분석 : 팬자막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이상빈, 「팬 번역의 법적 지위 개선에 관한 연구: 공정이용의 원칙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12(4), 한국번역학회, 2011.
- 이창수, 「코퍼스 기반 번역 연구(CTS) 방법론」, 『통역과 번역』, 15(1), 한국 통역과 번역 학회, 2013.
- 장기(張琦), 「웹툰 한중 번역에 대한 고찰」, 『통번역교육연구』, 12(4), 한국 통번역교육 학회, 2014.
- 방몽지(方夢之), 『中國譯學大辭典(중국 번역학 대사전)』, 상하이:上海外語教育出版社(상하이 외국어 교육 출판사), 2011.
- Jeremy Munday,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Therories and Applications』. 이덕봉(李德鳳) 역, 북경: 商務圖書館(상무도서관), 2005.
- 이화경(李和慶), 『西方翻譯研究方法論 : 70年代以後(서양 번역 연구의 방법론:70년대 이후)』, 북경: 北京大學出版社(북경대학 출판사), 2005.
- 사현주(司顯柱), 『翻譯研究: 理論,方法, 評價(번역 연구: 이론, 방법, 평가)』, 북경: 中國文史出版社(중국 문사 출판사), 2005.
- 네이버 웹툰 공식 중국어 번역 사이트 <http://www.webtoons.com/zh-hans/>
 웹툰 비공식 번역 사이트
[http://www.tuku.cc\(圖庫漫畫\)](http://www.tuku.cc(圖庫漫畫))
[http://manhua.dmzj.com\(動漫之家\)](http://manhua.dmzj.com(動漫之家))

Abstract

A Study on Unofficial Chinese Translation of The Korean Webtoons

Zhang, Qi

According as popularity of Korean webtoon rises in the country such as China, unofficial translation has appeared in succession. Whether there is no doubt about illegality of unofficial translation but people may be wondering how quality of the translation is and if there is something that can be referred by official translators. Therefore, this paper explores unofficial translation in four categories such as the fidelity of the translation to the original text, the fluency of the translation, the correspondence of text type characteristic and the translation strategy of culture element. Official translators can do better webtoon translation by escaping fault of unofficial translation and learning the merits of them.

Key words : webtoons translation, translation practice, translation criticism

투 고 일 : 2015. 9. 10. / 심 사 일 : 2015. 9. 15. ~ 2015. 10. 15. / 게재확정일 : 2015. 10. 16.